조계종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 원적

영결식 5월 4일 해인총림장 엄수



조계종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해인총림 전계사 · 사진)이 4월 30일 원적에 들었다. 법납 65세, 세납 80세. 영결식은 5월 4일 보경당에서 해인총림장으로 봉행됐으며, 다비식은 해인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종진 스님은 15세에 출가해 해인총림 율맥을 잇고 수행자의 길을 걸어왔다. 1985년 율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8년에 걸쳐 〈선문염송〉과 〈선문염송집〉 오류를 바로잡아 2014년 〈원전회편 선문염송집〉을 편찬했다.

종진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동화사에서 사미계, 1961년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0년 지관 스님에게 강맥(講脈)을, 1985년 종수 스님에게 계맥(戒脈)을 이어받았다.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인총림 강주를 역임하고, 1985~1998년 해인총림 율원장, 1999~2004년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를 거쳐 해인총림 율주, 반야사 주지, 계단위원회 및 법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대종사 법계를 받았으며, 해인총림 전계사와 조계종 법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부처님 오신 참뜻 노래로"

전북봉축위, 전북불교연합합창제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28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큰법당에서 '제18회 전북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

군산 그린비 합창단, 무주 향산사 부루나 합창단, 전북불교대학 부처님세상 합창단, 김제 보리수 합창단, 금산사 바라밀 합창단, 내장사 서래 합창단, 참좋은우리절 합창단 등 8개 합창단 300여 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공동집행위원장 성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일선포교현장에서 아름답고 청아한 음성공양으로 사바세계를 장엄하는 불교합창단의 전법 보살행을 진심으로 찬탄한다"며 "내 몸같이 일체중생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보살행의 실천행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집행위원장 진성 스님도 인사말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합쳐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합창 전법"이라며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합창단이야 말로 불보살의 모습"이라고 합창단을 격려했다.

찬불가 1곡과 자유곡 1곡을 선보인 합창단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신 참 뜻을 기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용자 마음 부처님처럼 도울 터"

Interview

교정대상 장려상 김행규 불심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가 받은 상은 불자 교정공무원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자 교정공무원들은 지금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용자들이 마음을 돌아보고 안정을 찾고, 또 자신의 과오를 참회해 새롭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 교정공무원들을 대신해 받은 만큼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5월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가 개최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구치소 불심회장을 맡고 있는 김행규(법명 보성) 회장이 장려상을 수상한 것이다.

김행규 회장은 교정공무원으로 1994년 임용돼 교정행정에 앞장섰다. 특히 1994년 불심회서 법명을 받고 신행활동을 겸한 교정교화에 앞장섰다. 서울구치소 내 불교담당을 맡아 수용자 개인신앙 상담, 불서보급, 단주보급, 법회 개최를 통해 수용자 심성순화와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행도 이어왔다.

30년 불심회 활동 · 봉사헌신
특진 영광, 근무지 변화 앞둬
"자리 옮겨도 불자회 꾸준히"

김행규 회장은 2005년부터 관내 복지시설 녹향원을 매월 두 차례 방문해 장애인 목욕봉사를 하고 시설청소도 도맡았다. 2011년부터는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을 정기후원하고 2012년부터 독거노인 목욕봉사도 진행했다. 또 녹향원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손을 도우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등록금도 지원했다.

특히 생명존중 정신이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형 확정 수용자 6명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개인 교화를 도왔다. 사형확정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수용자 가족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기여했다.

김 회장이 중심이 된 서울구치소 불심회는 1987년 설립 이후 꾸준히 활동해왔다. 교정교화 현장에서는 상근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불자회를 유지하기 쉽지 않지만 중심을 잡고 노력했다. 불심회에서 김 회장은 불자 교정공무원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 월례법회, 수계법회, 성지순례 등으로 신심을 다지고, 불교계 언론과 불서 보급, 영치금 및 생필품 시주 등도 펼쳤다.

"교정교화는 수용자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김 회장은 곧 남부구치소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교정대상 수상으로 김 회장은 1계급 특진의 영광도 안았는데, 교정공무원의 경우 진급 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진급과 함께 30년 넘게 활동해 온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발령받아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큰 상을 받고 남부구치소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곳에도 불자회가 있다. 남부구치소에서도 불자회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라며 수용자들에게 부처님 깨달음을 전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려운 이웃은 물론 장애우 시설 등을 자주 방문해 일손을 도울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기원"

충주불교사암聯, 시내서 시민들과 연등축제 봉행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오는 8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역사암연합회가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일섭)는 4월 20일 충주실내체육관 앞 특설무대에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성공 기원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이날 연등축제에는 충주불교사암연합회장 일심 스님을 비롯해 충주지역 스님들과 이시종 충청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등 기관 · 단체장들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했다. 이와 함께 행사에는 불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시민소원 등 달기' '합창단 공연' '전통문화행사' 등 체험했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는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염원을 담은 연등을 시민들에게 나눴으며, 시민들은 저마다 손에 연등을 들고 충주시내 주요 도심을 행진하는 등 장관을 연출했다.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연등축제.

충주불교사암연합회장 일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자비 정신으로 극복하자. 우리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나 평화와 행복의 향기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무예를 소재로 한 세계 유일의 국제종합 무예경기대회다. 올해에는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며 100개국 약 4000여 명이 참가해 20개 종목에 나선다. 우리나라 고유 무예인 택견 · 태권도를 비롯해 주짓수, 삼보, 무에타이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진다.

노덕현 기자

童心의 세계 연 사생대회

경주 불국사, 제34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4월 28일 경내에서 제34회 어린이 글짓기 · 그림 그리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주제 발표 후 창작활동을 펼쳤으며, 행사장에는 신라금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아울러 선재소년 · 소년합창단 공연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역대조사 가르침 되새기며"

정읍 내장사, 학명 · 박한영 스님 등 조사 다례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는 4월 30일 학명 · 박한영 · 매곡 · 희묵 스님 등 조사스님들의 부도가 봉안된 부도전에서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재곤 · 범여 · 법현 · 대우 스님 등 조계종 24교구 원로스님들과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운주사 주지 성락 스님,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 학명문도 스님 등 본말사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장병도 함께 기린 봉축

35사단 이순신연대 호국사 첫 봉축법회



부대 이전 후 지난해 법당 문을 연 육군 35사단 이순신연대 호국사(지도법사 권태정)가 첫 번째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4월 28일 호국사 법당에서 열린 봉축법회에는 정읍불교사암연합회장 도완 스님(내장사 주지), 내장사 한주 대우 스님, 운주암 주지 성락 스님 지역 스님과 105연대 노명종 대령, 정종명 중령 등 군간부 및 병사, 서래합창단과 불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방 장 지유 큰스님
주 지 경선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

38년 전통의 전국 최초 최고 명품교육
부산불교교육대학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의 새 지평을 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유식30송 / 이만 교수 / 9/30(월)~10/4(금) / 13:30~16:30
정 규 과 정 기초교리학과 불교학과 대학원 수화과 다도과
자격증 취득과정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등록 제2018-000374호)
불교문화전문지도사 (민간자격등록 제2019-000629호)
장례지도사 (국가공인 자격)
힐 링 과 정 대금반 민요반 사물놀이단 합창단
웰빙힐링장생아카데미 – 120세 건강 장생법 한의사, 전문의 초빙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Tel. 051-711-0700